Entrepreneurship & ESG 연구 제1권1호 : pp.72~91
2021년 08월

생애 주기별 창업교육 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미국 국가별 비교 및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손수미 ((주)에이치알연구소)*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연구배경 및 선행 연구
2.1 창업교육
2.2 창업의도
2.3 기업가정신
2.4 글로벌기업가정신
Ⅲ. 연구모형 설계 및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
3.2 분석 방법
3.3 연구분석 결과
3.4 연구 가설의 검증 결론
Ⅵ. 결론 및 토의
4.1 시사점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의 창업교육 및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GETR(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생애 주기별 창업 교육이 창업교육 경험,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과 미국의 생애 주기별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 경험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두 국가 간의 비교 결과, 미국의 창업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한국의 학생보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창업교육 경험의 영향과 매개효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창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창업의도

* 주저자, 에이치알연구소, careersm01@naver.com
• 논문투고일 : 2021-07-15. • 수정일 : 2021-08-20. •게재확정일 : 2021-08-27.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환경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창업교육이 떠오르고 있다. 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 창출 등 긍정적으로 효과를 일으켜 많은 국가에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양현봉 · 한창용 · 김진수, 2018). 우리나라도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창업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교육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행동으로 유발되는 심리적 상태이며, 창업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다. 기업가정신은 이렇게 유발된 의도에 활력을 넣어줄 중요한 매개가 된다. 이러한 창업의도와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창업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에 따른 학생들의 창업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정신 교육(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창업준비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신규 창업의도는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남정민 · 이환수, 2017).

창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창업의도는 첫 단계이자 준비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창업의도는 창업 의지와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수의 논문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윤병선 · 김천규, 2020). 창업의 영향요인으로 창업교육, 창업의도, 직업만족도, 부모 영향도 등이 존재하며, 창업교육이 다양한 영향요인을 포함하여 창업의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오세호・남정민, 2020). 미국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양준환 · 김춘광, 2020).

미국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는 곳 중 하나이다. 산업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30개 주 이상이 창업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10개 주는 직업, 창업 관련 과목 교육을 법제화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창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3배, 연평균 수입률은 27%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lod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창업 경험은 24.4%, 창업 의향은 46.7점(긍정 비율 32.5%)으로,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개인 차원의 기업가정신은 62.2점, 조직 차원은 58.8점으로 3.4점의 차이를 보였고, 기업가정신 생태계지수는 67.12점으로 20개국 중 16위에 해당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창업 경험과 창업 의향은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으나, 개인 ·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 생태계지수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73.3점)이 개인차원(72.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가 나진 않았다. 기업가정신 생태계지수는 86.81점으로 20개국 중 1위였으며, 교육을 제외한 모든 환경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았다. 교육부문에 있어 한국은 16위, 미국은 15위로 별 차이가 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의 생태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생애 주기별 창업교육의 질과 문화의 차이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기별 창업교육 경험의 차이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미 집단 간에 비교하였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GETR 비교

항목	한국		미국	
창업 경험	24.4%	▼	26.5%	▼
창업 의향	46.7점	▼	50.2점	▼
개인_기업가정신	62.2점	▼	72.9점	△
조직_기업가정신	58.8점	▼	73.3점	△
기업가정신 생태계지수	67.12점	▼	86.81점	△
교육부문	40.10%	16위	48.00%	15위
법.제도적 환경부문	79.74%	10위	95.82%	1위
시장환경부문	66.00%	16위	94.43%	1위
금융환경부문	78.68%	13위	98.85%	1위
문화부문	57.85%	15위	84.52%	5위
창업인프라 부문	80.32%	11위	99.27%	1위
평균	67.12%	16위	86.81%	1위

*교육부문 1위 : 중국(90.92), 문화부문 1위: 덴마크(99.16)

*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전체 평균보다 높음

* 출처: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창업교육

선행연구에 의한 창업교육의 정의는 다양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일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외에도 창의성과 자율성 등의 역량을 개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창업에 대한 지식 또는 실무적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을 배양하여 도전적인 삶의 방식

과 협업 능력, 창조성,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은 학생 본인의 진로로 창업 사업화를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상관하지 않고 대학 창업교육 지원에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김재현・이성호・남정민, 2020). 최종열・정해주(2008)는 창업교육을 창업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미래의 창업가를 위한 기업가적 태도에 관한 내용을 체험하는 과정이고, 1년 이내에 창업할 의사는 없지만, 직장인으로 회사 내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기업가적 태도를 지니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교육이라 정의하였다. 창업교육은 창업의도, 창업지식, 창업 열망, 창업실현, 가능성 등과 같이 창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향상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F. Liňan, 2004).

2.2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사업화에 대한 동기로서 창업을 위한 시작점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유망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행동으로 창업자의 관심과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Bird, 1988). 창업의도는 창업 성공과 실패 등의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창업에 대한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혁신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증가시킬 때 창업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였다(조영준, 2014).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는 창업교육 참여 횟수, 창업교육 경험 여부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성별, 소득,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대학 전공 순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정두식, 2012).

2.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로 기회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사고와 행동방식을 특징짓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가(Entrepreneur)라는 말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칸티용(RichardCantillon, 1734)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세이(J.B.Say, 1803)는 기업가에 대한 칸티용의 정의를 생산성의 개념과 결부하여 기업가를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자’로 정의하였다. 1930년대에 와서 슘페터(J.A.Schumpeter)에 의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기업가적 기능(Entrepreneurial function)이 강조되었고,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활동과 이러한 혁신 실행의 성향으로 기업가적인 활동을 혁신과 결부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업가를 혁신활동의 주체로 정의하였다. 슘페터 이

후,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데 Drucker(1985)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정신을 기업가정신이라 정의하였다. 하규수・윤백중(2011)은 기업가정신을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업의 경쟁 환경 속에서 혁신성,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진취성 등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가치와 창의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라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업가정신은 위험감수, 혁신, 기회의 포착과 활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카우프만재단은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초기 단계에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전(全)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박종복, 2008). 이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대학 내 창업교육 분석 연구 (송영명 · 김예슬, 2017), 한 · 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동향 비교(이장패 · 박창언, 2017)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4 글로벌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GETR)

GETR은 기업가적 프로세스와 사회적 환경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기업가정신의 성과 차원과 결정요인 차원을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창업 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활동(연구, 창작, 취업, 실패・재도전)에 기업가정신의 영향력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이다(정구혁・이병헌, 2017).

Ⅲ.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발행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GETR)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에 참여한 20개국의 데이터 중 한국, 미국 두 나라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창업교육 참여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응답 대상자 중 ‘창업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전체 4,000명(미국 2,000명, 한국 2,000명)의 데이터가 표본에 포함되었다.

〈표 2〉 글로벌 기업가 정신 조사 항목

구분	조사항목
기본 설문 문항	1. 성별 2. 출생연도 3. 학력 4. 한국.미국
교육	초・중・고등학교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창업교육) 대학과정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창업교육) 직업・평생교육과정 기업가정신・창업교육 경험 현 직업종사 중 창업준비교육 경험
창업의향	1. 창업의도 2. 창업시기
개인차원 기업가정신	도전정신 2. 창조성・혁신성 3. 리더 4. 가치지향

3.2 분석 방법

GETR의 개인 차원의 기업가정신 지표는 비교성(comparability)*과 일관성(coherence)**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4년 개발 시 사용하였던 지표를 사용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도전정신, 창조성・혁신성, 리더십, 가치지향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 요인들은 다시 각각 6~10개의 측정 문항들로 구성된다. 도전정신은 위험감수 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 진취성, 미래 지향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위험감수 성향과 진취성은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이다. 모호성에 대한 인내와 미래 지향성은 위험감수 성향과 진취성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Chrisman et al.(1998)에 의해 확장된 개념이 적용되었다. 창조성・혁신성은 새로움 추구, 유연성, 문제해결 능력, 외부수용성, 기술중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김진수 외(2009), Rhe et al.(2010), 우형록・권정언(2013) 등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리더십 요인의 경우 자율성(Lumpkin et al., 2009; Hughes & Morgan, 2007), 외향성/사회적 네트워킹(Diamantopoulos & Winklhofer, 2001; Walter et al., 2006), 자기효능감(Bandura, 1977)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가치지향 요인은 성취욕구(McCleland, 1961), 목표지향성(VandeWale, 1997), 사회공헌(Murphy et al.,2011)으로 구성된다(남정민・이환수, 2018).

〈표 3〉 개인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구성요소	인성적 특징	행동적 특징	가치와 신념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진취성(적극성)	미래지향

* 비교성(comparability)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지표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냄.

** 일관성(coherence)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지표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냄.

	모호성에 대한 안내		
창조성/혁신성	변화선호 성향 새로움 추구	유연성(융합적사고) 문제해결의지 외부수용성(개방성)	기술중시
리더십(자기주도성)	자율성	사회적 네트워킹	자기효능감
가치지향	성취욕구	목표지향성	사회공헌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창업교육 경험은 초 · 중 · 고 창업교육 경험, 대학 창업교육 경험, 직업교육 · 평생학습 창업교육 경험, 창업준비 교육경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각 항목은 명목척도 2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값이 된다.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는 높을수록 큰 값을 갖는 7점 척도가 되며, 주요 변수로 기업가정신은 개인과 조직에 따라 각각 도전정신 10개 항목, 창조성 · 혁신성 10개 항목, 리더십 6개 항목, 가치지향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 7점 척도로 7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값이 된다.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성별 및 연령을 통제하였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더미 변수로 표시함으로써 국가집단을 비교하였다.

〈표 4〉 개인차원 인식 지표별 세부 문항

구분	조사항목
도전정신	① 나는 조금 위험하더라고 수익이 큰 투자를 선호한다. ② 나는 의미있거나 흥미로운 일을 만나면 성공이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시도하고 본다. ③ 나는 안정적인 직장보다 불안정하지만 수입이 많은 직장이나 직접 창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④ 나는 모호한 상황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많다. ⑤ 나는 필요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계획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 적응해 가는 것을 잘한다. ⑥ 나는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⑦ 나는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편이다. ⑧ 나는 경쟁적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경쟁을 즐기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편이다. ⑨ 나는 미래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⑩ 나는 미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사건에 관심이 많다.
창조성· 혁신성	① 나는 독창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편이다. ② 나는 무언가를 힘에 있어서 새롭고 다른 방식을 찾는 편이다. ③ 나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④ 나는 다양한 관점을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는 한다. ⑤ 나는 불명확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⑥ 나는 어떤 문제라도 문제해결에 끈기를 가지고 임한다.

	⑦ 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사용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⑧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⑨ 나는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⑩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안, 개선과 혁신을 적극 장려한다.
리더십 (자기주도성)	① 나는 나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원한다. ② 나는 목표설정에 있어 타인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③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주 구하는 편이다. ④ 나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나는 다양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⑥ 나는 어떠한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가치지향	① 나는 남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도 끝까지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② 나는 새로운 일을 통해 기술이나 지식을 쌓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③ 나는 내가 배울 수 있는 도전적인 일을 좋아한다. ④ 나는 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피하고 싶다. ⑤ 나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 ⑥ 나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타인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 ⑦ 나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타인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

자료 : 2016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창업교육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초중고 창업교육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대학생 창업교육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평생 창업교육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창업 준비 교육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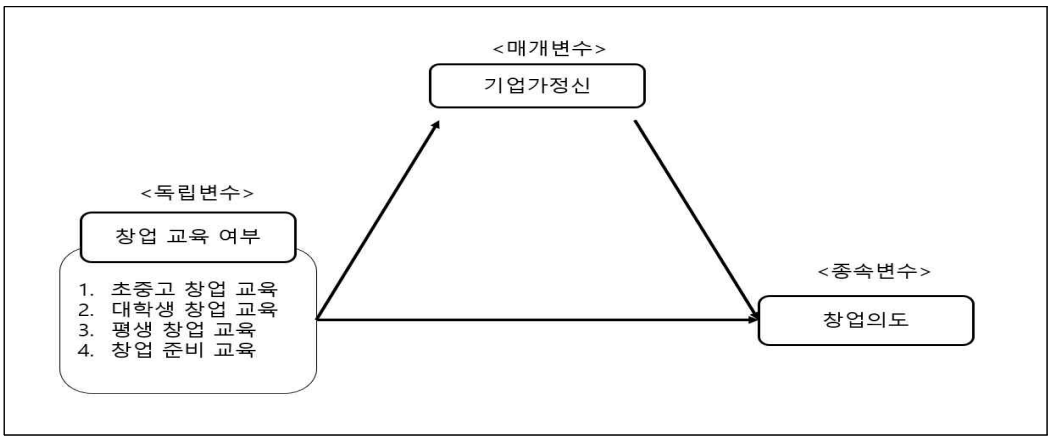
2-1. 기업가정신은 초・중・고 창업교육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2. 기업가정신은 대학생 창업교육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3. 기업가정신은 평생 창업교육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4. 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 그림 1> 연구모형



3.3 연구분석 결과

3.3.1 인구통계학적 집단 비교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총 4,000명(한국 2,000명, 미국 2,000명)으로 <표 5>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 먼저 개인적 특성의 경우 성별은 남자가 2,095명(52.4%), 여자가 1,905명(47.6%)으로 남성이 많이 조사되었다. 나이의 경우 10대 미만 129명(3.2%), 20~29세 368명(9.2%), 30~39세 523명(13.1%), 40세~49세 445명(11.1%), 50세~59세 452명(11.3%), 60세 이상 2,083명(52.1%)으로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미취, 초졸, 중졸, 고졸 포함) 1,454명(36.4%), 대학교 졸업 2,144(53.6%), 대학원 졸업 402명(10.1%)으로 대학교 졸업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 · 중 · 고 창업교육 경험은 전체에서 960명(24.0%), 대학 창업교육 경험 813명(20.3%), 직업교육 · 평생교육 창업교육 참여경험은 639(16.0%), 창업 준비 교육 참여경험은 774(19.4%)로 나타났다.

<표 5>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변 수		빈 도(명)	퍼센트(%)
국가	한국	2,000	50.0
	미국	2,000	50.0
성별	남자	2,095	52.4
	여자	1,905	47.6
나이	1997년이후(10대)	129	3.2

	1996년～1987년(20대)	368	9.2
	1986년～1997년(30대)	523	13.1
	1976년～1967년(40대)	445	11.1
	1966년～1957년(50대)	452	11.3
	1956년 이전(60대)	2,083	52.1
학력	고졸이하	1,454	36.4
	대학교 졸업	2,144	53.6
	대학원 졸업	402	10.1
초·중·고 창업교육	경험없음	3,040	76.0
	경험있음	960	24.0
대학창업교육	경험없음	3,069	76.7
	경험있음	813	20.3
직업교육·평생교육 창업교육	경험없음	2,977	74.4
	경험있음	639	16.0
창업준비교육	경험없음	2,842	71.1
	경험있음	774	19.4

3.3.2 신뢰도 분석

변수 항목의 창업교육 경험의 신뢰도(Cronbach’s alpha) 통계량은 .781이며, 개인 기업가정신 신뢰도 통계량은 .962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 항목별 신뢰도는 <표 6>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 6>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창업교육참여 경험		.781		4	
기업가정신	도전정신	.896	.962	10	33
	창조혁신	.935		10	
	리더십	.808		6	
	가치지향	.837		7	

3.3.3 요인분석

한국과 미국의 사용 변수의 요인분석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요인 추출을 실시하였고 베리멕스 회전을 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 33개 항목 중 11개를 사용하였으며, 창업교육 경험 4개 항목의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적재 값이 모두 0.4 이상이므로

창업의도를 추가하여 총 16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표 7> 요인분석 결과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4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3795.329
	자유도	120
	유의확률	0.000

	성분		
	1	2	3
기업가정신_리더십5	.834	.087	-.014
기업가정신_가치지향3	.823	.025	.106
기업가정신_가치지향1	.815	.063	-.006
기업가정신_창의혁신성4	.802	.097	.089
기업가정신_리더십6	.802	.121	.068
기업가정신_가치지향2	.785	.033	.149
기업가정신_창의혁신성5	.783	.133	.100
기업가정신_창의혁신성2	.781	.089	.186
기업가정신_창의혁신성6	.778	.103	.019
기업가정신_창의혁신성3	.743	.101	.207
기업가정신_창의혁신성7	.708	.159	.227
대학교육경험	.057	.817	-.003
초중고교육경험	.107	.796	.041
직업평생교육	.090	.772	.102
창업준비교육	.116	.666	.278
창업의도	.220	.217	.910
고유값	6.903	2.495	1.102
% 분산	43.146	15.594	6.889
누적 %	43.146	58.740	65.629

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3.3.4 상관분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초 · 중 · 고 창업교육 경험은 대학창업교육 경험에 r=.556(p<.01), 직업교육 · 평생교육 창업교육 경험에 r=.467(p<.01), 창업준비교육 참여경험에 r=.430(p<.01), 개인 기업가

정신 함양에 r=.238(p<.01), 창업의도는 r=.270(p<.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창업교육 경험은 직업교육 · 평생교육 창업교육 경험에 r=.495(p<.01), 창업준비교육 참여경험에 r=.409(p<.01), 개인 기업가정신 함양에 r=.216(p<.01), 창업의도는 r=.260(p<.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업교육 · 평생교육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준비교육 참여경험에 r=.492(p<.01), 개인 기업가정신 함양에 r=.227(p<.01), 창업의도는 r=.260(p<.01)로 모두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r=.423(p<.01)로 정(+)의 관계로 확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한국 · 미국 상관분석 결과

	초·중·고 창업교육	대학창업 교육	평생교육	창업준비 교육	기업가정신 평균	창업의도
초·중·고 창업교육	1					
대학창업 교육	.556**	1				
평생교육	.467**	.495**	1			
창업준비 교육	.430**	.409**	.492**	1		
기업가정신 평균	.238**	.216**	.227**	.239**	1	
창업의도	.270**	.260**	.260**	.293**	.423**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3.3.5 매개 효과 분석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창업교육참여 경험 여부는 창업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 중 · 고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0.092, P<.001). 직업교육 · 평생교육 창업교육 참여경험은 창업의도에 정(+)적으로 나타났다(β=0.052, P<.001). 창업 준비 교육 참여경험은 창업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30, P<.001). 또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β=0.377, P<.001). 반면, 대학생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교육경험과 창업의도 간에 기업가정신의 매개 효과 검증결과, <표 9>와 같이 초·중·고 창업교육, 직업 평생교육 창업교육, 창업 준비 교육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창업교육에는 유의하지 않게 결과가 나와 기업가정신은 부분 매개로써 변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창업교육과 창업의도간 기업가정신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1단계 (창업교육->창업의도)					2단계 (창업교육->기업가정신)					3단계 (창업교육-기업가정신-> 창업의도)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3.193	.111		28.686	.000	3.309	.061		54.181	0.000	1.032	.140		7.375	.000
성별 (남성=1)	.220	.049	.071	4.507	.000	.055	.027	.030	2.034	.042	.185	.046	.059	4.044	.000
출생	.033	.019	.029	1.728	.084	.241	.010	.372	23.133	.000	-.125	.019	-.111	-6.556	.000
학력	.012	.005	.036	2.158	.031	.012	.003	.064	3.965	.000	.004	.005	.012	.787	.431
1(초중고교)	.460	.073	.125	6.307	.000	.187	.040	.088	4.667	.000	.338	.068	.092	4.949	.000
2(대학교육)	.242	.079	.062	3.058	.002	.210	.043	.093	4.840	.000	.105	.074	.027	1.413	.158
3(평생교육)	.324	.080	.080	4.077	.000	.170	.044	.072	3.897	.000	.213	.074	.052	2.865	.004
4(창업준비교육)	.623	.071	.165	8.827	.000	.202	.039	.093	5.232	.000	.490	.066	.130	7.417	.000
기업가정신											.653	.028	.377	23.049	.000
F-Value	77.557(p=0.000)					141.324(p=0.000)					144.240(p=0.000)				
R^2	.131					.215					.242				

한국과 미국 집단에 따라 주요 변수에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표 10>과 같다. 그 결과 한·미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초·중·고 창업교육경험 (t=-7.832, p<.05), 한국(M=.1875)보다 미국(M=.2925)이, 창업 준비 교육(t=-5.347, p<.05), 한국(M=.1763)보다 미국(M=.2491)이, 기업가정신(t=-27.399, p<.05), 한국(M=4.3844)보다 미국(M=5.1041)이, 창업의도(t=-4.255, p<.05), 한국(M=3.80)보다 미국(M=4.01)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대학창업교육경험, 직업/평생교육 창업교육은 한·미 국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 10〉 국가 간의 독립표본 T-검정 검증 결과

집단통계량						t	유의확률(양측)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초중고 교육경험	한국	2,000	.1875	.39041	.00873	-7.832	.000
	미국	2,000	.2925	.45502	.01017		
대학교 육경험	한국	1,899	.2070	.40523	.00930	-.371	.711
	미국	1,983	.2118	.40869	.00918		
직업평 생교육	한국	1,741	.1706	.37626	.00902	-.930	.352
	미국	1,875	.1824	.38628	.00892		
창업준 비교육	한국	1,741	.1763	.38121	.00914	-5.347	.000
	미국	1,875	.2491	.43259	.00999		
기업가 정신평균	한국	2,000	4.3844	.77454	.01732	-27.399	.000
	미국	2,000	5.1041	.88324	.01975		
창업의도	한국	2,000	3.80	1.365	.031	-4.255	.000
	미국	2,000	4.01	1.714	.038		

3.4 연구가설의 검증 결론

연구결과 첫째, 초 · 중 · 고 창업교육경험은 창업의도의 정(+)의 영향을 미친다. 대학교 창업교육 경험도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직업교육과 평생학습 창업교육 경험도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창업 준비 교육도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창업교육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정신은 초・중・고 창업교육과 창업의도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정신은 대학생 창업교육과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평생창업교육과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과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초・중・고 창업교육부터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하여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을수록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전(全) 연령층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Ⅳ. 결론 및 토의

경제대국 미국은 교육을 제외한 법제적 환경, 시장환경, 금융환경, 창업 인프라 및 문화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 등의 인프라와 금융 환경, 창업 기업의 풍부한 시장 접근 기회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EI(생태계지수) 지표 중 창업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미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에서 가장 용이하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으며, 벤처나 창업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도 가장 쉽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창업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유용하다는 응답이 칠레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외부 기술이전의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벤처생태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창업 경향에서 창업실패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창업에 실패할 경우에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대목은,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지표가 된다. 또한, 재기의 어려움 및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 부족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미비점을 갖고 있다(남정민 · 김현성, 2018).

따라서 이 모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른 시기부터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과 같이 체계적이고 질 높은 창업교육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나아가 창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실제로 초・중・고 및 대학, 평생교육 차원에서 창업교육 경험은 신규 창업의도에 주요한 영향요인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남정민・이환수, 2017). 즉 창업교육을 통해 개선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실제 창업 태도 및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플랫폼과 비대면 관련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창업과 대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2021년 5월 발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청년층에서 3년 이상 미취업자의 수가 28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에서 일할 의지가 없는 ‘니트족’은 10만 명에 육박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는 청년층 진로선택에 미국과 같은 선진적 창업교육 경험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할만하다. 기업가정신을 삶을 대하는 태도인 역량 측면으로 본다면 학령기가 어렸을 때 기업가정신 교육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로 GETR 지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는 측정문항의 복잡성과 해외지표와의 연계성, 연구 활용 가능한 종속변수가 부족하여 몇 가지 개선점을 요구한다(정구혁・이병헌, 2017). 본 논문은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생애 주기적 창업교육 경험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중・고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시간확대 등이 필요한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콘텐츠, 창업교육의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창업교육 경험의 교육만족도를 높여 창업의도 및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연계 연구과제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가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 종단연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창업연구 중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는 남정민 외(2013)의 연구 등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남정민・이환수, 2018).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재현 · 이성호 · 남정민(2020),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사례분석 – 10개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을 중심으로”

남정민 · 이환수(2019),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과 창업태도에 대한 연구 :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폴 비교 분석”

남정민 · 이환수(2017),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 연구 :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의 비교”

남정민 · 김현성(2018) “주요 20개국 기업가정신 비교 연구 : 기업가정신교육경험을 중심으로”

박종복(2008), “미국의 기업가정신 현황과 시사점 -카우프만재단을 중심으로-”

송영명 · 김예슬(2017), “한국과 미국의 대학 내 창업교육 분석 연구”

양준환(Yang Jun-Hwan),and 김춘광(Kim Choon-kwang).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의 이중매개모형.“ 大韓經營學會誌 33.3 (2020): 443-461.

양현봉 · 한창용 · 김진수(2018),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오세호 · 남정민(2020), “청년층 직업선택과 창업의 영향요인 분석 -7개국 국가 간 비교연구-”

우형록 · 권정언(2013). 기업가적 지향성과 흡수역량이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21(2), 57-84.

윤병선 · 김천규(2020),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 창업교육 매개효과”

이장패 · 박창언(2017), “한 · 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동향 비교”

장대성 · 홍석기(2001), “한국 대학생의 창업교육효과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정두식(2012), “대학생의 창업교육 선호도와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구혁 · 이병헌(2017), “기업가정신 국제조사(GETR)의 개선방안 연구”

조영준(2014),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를 매개효과로”

최종열 · 정해주 (2008), “경영학 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규수 · 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7),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보고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7),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통계집)”

(2) 국외문헌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442-453.

Drucker, P. F.(1985), “Innovation & Enterpreneurship. Practice & Principles”, Harper.

Diamantopoulos, A., & Winklhofer, H. M.(2001). Index construction with formative indicators: An alternative to scale develop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8(2), 269-277.

F. Liňan(2004), “Intention-based mode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iccolla Inpresa /Small Business, 3, 11-35.

Gatewood E ,Chrisman J . “An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Rural versus Non-Rural Area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 640-641.

Lumpkin, G. T., Cogliser, C. C., & Schneider, D. R.(2009). Understanding and measuring autonomy: A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perspectiv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1), 47-69.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ement society. Princenton, NJ: Von Nostrand.

Murphy, R. O., Ackermann, K. A., & Handgraaf, M.(2011). Measuring social value orientati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6(8), 771-781.

Rhee, J., Park, T., & Lee, D. H.(2010). Drivers of innovativeness and performance for innovative SMEs in South Korea: Mediation of learning orientation. Technovation, 30(1), 65-75.

VandeWalle, D.(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work domain goal orientation instru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7(6), 995-1015.

Walter, A., Auer, M., & Ritter, T.(2006). The impact of network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university spin-off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4), 541-567.

<ABSTRACT>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by Life Cycle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ntri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on Su Mi*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S.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using data from the 2016 Global Start-up Trend Report (GETR) to educate start-ups in Korea and create a desirable entrepreneurial ecosystem.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experi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Korea and the U.S. has a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Second, entrepreneurship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lso, Entrepreneurship has been verifie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ir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ffecting their intentions differently.

As a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as found that students who experienced start-up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ad higher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intentions than Korean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n-depth exploration of way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tart-up education in Korea through comparison of the influence and mediating effects of start-up education experiences.

Keywords :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irst author author, HR Research Institute, careersm01@naver.com